회의일시	2026년 10월 19일(월) 14:00
회의장소	세종시청 4층 여민실
회의주제	제5대 세종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공청회
제 작	기록속기사무소

본 회의록은 녹음된 음성언어CD의 내용과 일치함을 확인함.

2026년 10월 23일

기록속기사무소 (인)

(사업자등록번호 : 742-38-00373)

대표 김충만 (인)

(자격번호 : 11-G1-000313)

▶ 본 문서는 속기사의 허락 없이 수정할 수 없음.

▶ 본 회의록은 녹음일시, 장소 및 대화자, 지문의 설정은 의뢰인이 한 것이며, 녹음 청취의 미비 등으로 인한 명사나 고유명사의 표기에 오기가 있을 수도 있음.

▶ 이해력을 돕기 위하여 불필요한 어구 첨삭이나 일부 사투리, 어순 정리는 속기사의 재량으로 정리하였음.

▶ ** 표시는 청취불능 표시임.

(記錄 始作)

○ **사회자 (의회협력팀장 정미현)**

바쁘신 중에도 오늘 세종시의회 의원 의정비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 세종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발표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에 따라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그 결과를 의정비에 반영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금까지 3차 회의에 걸쳐 지급기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공청회에 논의할 안건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공청회 등 주민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반영하여 의정비를 의결하고 이를 10월 31일까지 시와 시의회에 통보하게 됩니다. 그 이후 시의회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통보한 금액 이내로 관련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의정비가 최종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오늘 공청회의 진행 순서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에 있는 것처럼 참석자 소개를 마친 후 위원장님의 주재로 인사말씀과 함께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과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후 세종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내용에 대해 발표자로 선정되신 4명 발표자분들의 찬반 의견과 발표자 간 질의·답변 후 참석하신 시민 방청객분들의 의견 제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회의장에 입장하실 때 자료와 함께 의견제출서를 나눠드렸습니다. 의정비 지급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작성해 제출해 주시면 추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종시의회 의원 의정비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께서는 앉은 상태로 예를 표하셔도 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국민의례 》

바로! 애국가 제창과 묵념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석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되신 발표자께서는 자리에서 가볍게 일어나 인사해 주시고 방청객 여러분은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공청회 주재자이신 세종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이십니다.

《 일동 박수 》

이어서 발표자로 참석해 주신 네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주 세종연구원 책임연구원이십니다.

《 일동 박수 》

최병조 세종교육회의 공동대표님이십니다.

《 일동 박수 》

박하진 세종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님이십니다.

《 일동 박수 》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이십니다.

《 일동 박수 》

이상 참석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주재자이신 한기정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 주재자 (한기정)

안녕하십니까? 세종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기정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5대 세종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에 관심을 가지고 귀한 시간을 내셔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원 의정비는 지방선거 주기에 맞춰 4년에 한 번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을 통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종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각계의 추천을 받아 지난 8월 10명의 위원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같은 날 개최한 제1차 회의를 통해 호선으로 제가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이번 의정비 결정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된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토론의 내용과 의견, 방청석 여러 시민들께서 개진해 주신 의견들을 잘 경청하여 의정비 지급 범위를 최종 결정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매우 내실 있고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금일 공청회에서 지켜주실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의 발표와 토론은 제3차 세종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지급기준과 그 사유에 대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발표자는 의정비 지급기준안의 적정성에 한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주재자가 발표 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 발언 중지 및 퇴장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본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참석하신 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의정비 관련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하실 때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비 개념 및 지급현황입니다. 의정비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보수 성격의 금액으로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월정수당은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며,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됩니다. 2026년 현재 세종시의회 의원 의정비는 월정수당 3,801만 원입니다. 의정활동비 2,400만 원으로 연간 6,201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 결과와 제3차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사항 및 그 사유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8월 교육, 법조, 언론, 시민단체, 동·이장, 시의회 의장 등 각계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되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총 3회의 회의를 거쳤습니다. 지난 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및 공개회의를 결정하였으며, 2차 회의에서는 주민 의견수렴 방식을 공청회로 결정하였고, 지급기준안에 대해서는 의견의 합의가 어려워 제3차 회의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3차 회의에서는 현재 공청회에서 논의할 지급기준안을 결정하였습니다. 3차 회의에서 결정한 지급기준안은 2027년 월정수당 4,141만 원, 2028년부터 2030년 월정수당 인상률은 등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이며, 이 중 27년 월정수당은 26년 월정수당 3,801만 원 대비 약 8.9% 인상한 금액입니다. 또한 의정활동비는 현행과 같은 연 2,400만 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정비 지급기준안 결정 사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의 겸직 및 세종시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정비를 동결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세종시의회가 타 시·도의회와 달리 광역사무와 기초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라는 점과 국가 공공기관 이전 및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등 행정수도 완성 과정에서 의회 역할의 확대, 전국 광역시·도 평균보다 높은 1인당 의안 발의 건수, 회의 일수 등 의정활동 실적을 고려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가장 낮은 세종시의회 의원의 의정비 현실화를 위해 의정비 인상을 지급기준으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정비 결정 시 고려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와 행안부에서 제공한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의원 1인당 주민 수, 재정자립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참석하신 패널분들의 찬반 발표 관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3차 세종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지급기준안에 대한 찬반 발표와 발표자 상호 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 선정은 행정절차법 및 행정안전부 의정비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찬성과 반대 측 각각 2명씩 선정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본격적인 토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표하시는 분들은 정해진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경과할 경우 종을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찬성 측 김홍주 책임연구원님, 반대 측 박하진 이사장님, 찬성 측 최병조 공동대표님, 반대 측 성은정 사무처장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김홍주 책임연구원님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발표자 (김홍주)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의정비 결정 공청회에 찬성 의견 발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연구원 김홍주입니다. 오늘 저는 의정비 지급기준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시 재정이 어려운데, 왜 의정비를 올려야 하는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판단할 때 단순히 인상률을 비교하기보다는 세종시의회가 어떤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고 있고, 그에 걸맞은 보수와 의정활동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적정 보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욱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한 엄격한 행정 감시, 시민에 대한 책임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전제로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종시의회의 역할에 비추어 현재 보수 수준을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종시의회 월정수당은 과거 연기군 시절의 지급 수준에 준합니다.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2년 세종시 출범 당시에 연간 2,400만 원이었던 월정수당은 상당 기간 이후에 동결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맞춰서 조정된 바는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세종시의회 월정수당은 연간 3,801만 원으로 광역의회와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번 조정안 27년 안은 4,141만 원인데, 전국 의정비 기준으로 해도 가장 낮습니다. 이게 전북도의회 2026년 기준 같은 액수거든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금액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세종시 인근의 대전시의회와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번 심의는 향후 4년간 월정수당의 기준액을 새롭게 정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보수 인상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급 수준이나 의회의 의정활동 성과, 그다음에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세종시의회는 다른 광역의회와 구조가 다릅니다. 대전만 하더라도 광역의회 외에도 5개의 자치구가 있어서 광역과 기초의 의정 기능을 나눠서 수행합니다. 세종시는 별도 기초의회가 없습니다. 21명의 의원을 중심으로 하나의 의회가 광역과 기초행정에 대한 심의와 감시를 동시에 수행하는데, 더욱이 신도심 교통과 도시개발 문제에서부터 읍·면 지역의 농업, 농촌 도로, 하천, 고령화까지 함께 다뤄야 합니다. 인구가 적다고 행정사무가 적은 게 아닙니다. 주민 수와 관계없이 수행해야 할 행정기능과 관리할 공공시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일반 광역시·도, 지역구의 의원정수가 우리가 법률상 19명을 최소로 하고 있는데, 세종시는 특별법에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최소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18명의 지역구 의원정수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층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가미한 지원이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의회는 직무 부담이나 이런 부분에서 단순히 인구나 의원수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상임위별 소관업무가 광역이나 기초 기능을 함께 포함하기 때문에 전문성 요구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에는 전문성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요. 실제 광역적인 사안에서 정책과 예산심의를 동시에 수행하지만 기초행정과 직접 연결되는 주민생활 문제까지 살펴봐야 됩니다. 일반적인 광역의회 같은 경우는 지역 현안도 다루지만, 별도의 기초의회가 없는 세종시

같은 경우는 도로, 하천정비, 생활환경 개선, 주민 불편 해소와 같은 기초행정의 문제도 동시에 작동되고 이런 것이 지역 현장의 문제가 의원들에게 직접 전달되고, 의원들은 이러한 것들을 현장 확인하면서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심의나 행정사무 감사, 조례 개선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실제 의정활동에 있어서 지역 현장성은 다른 광역의회보다 잡히지 않는 그러한 활동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는 이러한 의정비는 민주성과 책임정치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근대정치사회학자인 막스 베버는 직업정치론에서 얘기하는데, 정치적 소명의식이랑 경제적 독립성의 대가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 경제에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안정적으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면 청년과 다양한 계층들이 정치 참여에 제약될 수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보수는 다양한 시민과 주민대표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조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적 조건을 갖춰서 실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시키고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행정사무 감사의 지적 문제를 실제 개선했는지, 불요불급한 이러한 사업들을 정리하면서 예산 낭비와 재정 효율성을 기여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고 그에 따른 책임성을 평가받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로 이러한 의정비 조정은 단순히 의원 개인의 처우 문제가 아니라 세종시의 특수한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의정활동의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적정한 보수와 충분한 의정활동이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서 적정한 보수는 더욱 충실한 의정활동이 기반돼야 하고, 그 결과에 맞는 성과와 책임이 시민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답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판단으로 저는 세종시의회의 합리적인 월정수당 조정에 찬성하는 바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일동 박수 》

○ 주재자 (한기정)

김홍주 책임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가지 안을 찬성 카테고리로 주셨습니다. 네 가지

의 역할에 대한 부분과 책임, 전문성, 그리고 대표성. 전체적으로 책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세종시가 도농복합도시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 단층제 도농복합으로 되어 있는 도시가 16개 도시 중에 2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시와 제주도로 알고 있는데, 단층제 저희가 2차, 3차 회의에서 이 단층제가 광역 업무와 뭐가 다를까라고 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집행부에서 자료를 받았었습니다. 받았었는데, 차이라는 부분과 일이 더 많다는 부분보다 아무래도 우리 의원들에 대한 전문성이 더 고려되지 않을까. 말 그대로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많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홍주 책임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도시 안에 있는 지역구를 둔 위원님들이야 다르겠지만, 면 단위, 읍 단위를 끼고 있는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업무가 주어진다고 봅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홍주 위원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동 박수 》

이어서 두 번째 반대 측으로 오신 우리 박하진 이사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 (박하진)

5분보다 조금 긴 8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박하진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에게도 조심스럽고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시민이 한 사람으로서 세종시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의원들이 노고를 부정하거나 월정수당 인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의회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은 보수와 처우가 필요하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이 과연 월정수당을 큰 폭으로 인상할 적절한 시기인가 하는 점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번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2027년 월정수당을 전년보다 약 340만 원, 8.9% 인상한 4,141만 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인상안에 대해 동결하거나 아니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드리고,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은 의정비 인상보다 재정에 대한 책임이 우선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현재 세종시는 세수 부족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조차 한정된 재원 안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의원님들이 월정수당을 8.9% 인상한다면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물론 의정비 인상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세종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예산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시민에게는 재정의 어려움을 이해해 달라고 하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상대적으로 큰 폭의 인상을 결정한다면 그 메시지가 과연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의회는 시민을 대신해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부를 감시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는 누구보다 먼저 시민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위원님들의 권위를 낮추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시민의 신뢰를 높이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의정활동의 가치는 양적인 실적보다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인상 근거에는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낮은 의정비 수준과 세종시의 특수성, 행정수도 완성에 따른 역할 확대, 조례 발의 등 의정활동 실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근거에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세종시의회 의원 의정비가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낮은 수준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정비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다른 지역보다 얼마나 적게 받느냐가 아니라 세종시의 현실에 얼마나 합당하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세종시가 광역과 기초사무를 함께 수행하는 특수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업무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에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다른 광역의회보다 의정비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인상 폭의 적정성이 충분히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종시는 다른 광역단체와 인구 규모, 재정 여건, 행정 구조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례 발의 건수가 증가했다는 사실은 긍정적인 성과입니다. 하지만 조례가 몇 건 만들어졌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조례가 시민의 삶을 얼마나 바꿨는가 하는 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행정을 얼마나 바로 잡았는지, 예산심의를 통해 낭비를 얼마나 줄였는지,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는지가 함께 평가되어야 합니다. 의정활동의 진정한 성과는 조례의 숫자가 아니라 시민의 삶 속에 남겨진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이 선행된다면 의정비 현실화에 대한 공감도 훨씬 커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정비 인상의 정당성은 시민의 신뢰와 공감에서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 핵심기관입니다. 위원님들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정한 보수가 필요한 점에는 저 역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의정비는 의원님들의 처우에 관한 문제이면서 동시에 시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공적 결정입니다. 따라서 법과 절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니만큼 중요한 것이 시민의 이해와 공감입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의 공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인상은 오히려 의원님들의 성실한 의정활동까지 불필요한 오해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도, 시민들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앞둔 세종시는 어느 때보다 의회와 시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행정수도 완성에 따른 지방의회의 역할 확대는 앞으로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역할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만으로 지금의 인상 폭을 정당화하기보다는 실제 업무 변화와 성과를 확인하여 단계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여러분, 저는 의정비를 무조건 동결하고자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에 걸맞은 합리적인 보수체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인상의 필요성과 인상 시기의 적절성은 구분해

서 판단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종시의 재정이 어려운 지금 시민과 함께 부담을 나누는 선택은 결코 작은 결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민들에게 의회가 어떤 가치를 우선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이에 저는 2027년도 월정수당을 동결하거나 불가피하게 조정하더라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수준으로 제한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재정 여건과 의정활동의 실질적인 성과, 시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의정비는 의원님들의 역할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그러나 그 인상의 정당성은 시민의 공감에서 완성됩니다. 지금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더 많은 희생이 아니라 어려운 시기를 함께한다는 의회의 진정성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공청회가 시민과 의회가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를 높이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일동 박수 》

○ 주재자 (한기정)

박하진 이사장님, 발표 내용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반대 의견을 주신 박하진 이사장님 말씀에도, 찬성을 하셨던 우리 김홍주 위원님과 말씀이 역할에 대한 부분이나 책임에 대한 부분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26년도 8.9% 인상안은 전체적인 액수를 보면 340만 원이라는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나누면 한 달에 28만 원 정도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8.9% 안에는 아마 저희가 합의했던 내용으로는 27년도 공무원 인상률이 3.9%입니다. 실질적으로 3.9%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나머지를 빼면 5% 인상률로 결정되는 부분인데, 2개를 합한 금액이 8.9%로 이 부분에 대해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 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단층제부터 여러 가지 시의 재정자립도나 재정 여건이나 등등을 고려해서 판단하시는데, 전국 16개 시·도에서 세종시가 1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심의위원회 안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지만, 그 안에서 절충해서 8.9%로 인상안을 조정해서 의결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하진 이사장님 발표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동 박수 》

이어서 세 번째로 찬성 측의 최병조 공동대표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 (최병조)

안녕하세요? 세종교육회의 공동대표 최병조입니다. 저는 오늘 세종시의회 의정비 인상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의원들에게 돈을 더 주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을 지방의회에 보내야 하는가. 그렇다면 그들이 생계 걱정 없이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조건도 만들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부터 출발해봤습니다. 지방의원을 흔히 봉사직이라고 얘기하는데, 봉사하는 자리 아닙니다. 그건 옛날에 썼던 말들이고요. 물론 봉사정신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공적인 권한을 준 공인입니다.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 감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정하는 결정은 우리 주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중요한 행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봉사라는 이름, 또는 봉사라는 이름을 씌워서 경제적으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봉사정신을 요구하는 것과 전문적인 공직 수행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의미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세종시 의원은 21명입니다. 26년 세종시 교육청과 본예산을 합치면 2조 2,0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의원 수로 나누면 1,5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심의하고 감사하는 셈입니다. 앞에서도 기초의회가 없는 단층제라고 얘기했습니다. 광역행정만이 아니라

주민과 밀접한 기초행정도 함께 다뤄야 합니다. 제109회 정례회의에 접수된 안건만 봐도 93건, 그리고 조례가 35건입니다. 이 안건들을 검토하고, 법령을 공부하고, 예산을 분석하고 현장을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이거는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시간들을 투자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남은 시간에 수행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광역의원이라면 의정활동을 자신의 주된 직업으로 삼고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확인된 자료들을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11명 의원 중에 44명, 세종시도 21명 중의 11명이 유보수 겸직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 지역을 합치면 55명 정도이고, 약 41%가 유보수를 겸직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겸직하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소홀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 의원들이 겸직을 해야만 하는지, 겸직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의정비 때문인지, 아니면 기존에 사업을 하던 게 정리가 어려워서인지, 아니면 의원 임기가 끝난 뒤 생계가 걱정돼서인지. 겸직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기 전에 다른 직업이 없어도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조건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돈 있는 사람만의 의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가장 크게 생각하는데요. 평범한 직장인이나 청년, 사회활동가, 이들이 출마를 고민할 때 무엇을 고민하겠습니까. 직장을 그만둬도 될까? 가족의 생계비는 어떻게 될까? 4년 뒤에 낙선하면 다시 일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능력 있고 성실한 사람들이 정치에 도전하지 못 한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만 상대적으로 쉽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을 대표할 자격은 재산이 아니라 능력, 성실성, 공공에 대한 책임감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의정비는 적정 수준이 있어야 합니다. 2006년부터 지방의원을 유급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재들이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그 취지가 충분하게 실현되고 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26년 세종시 의원들의 의정비는 연간 6,200만 원 수준입니다. 만약에 인상안을 올리게 된다면 340만 원 정도 올리게 되는데, 월로 치면 28만 원 수준입니다. 물론 이 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원은 4년 선출직이고요. 일반 공무원처럼 정년이나 호봉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직업 복귀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퇴직금도 없습니다. 4년에 한 번 이런 인상 기회들이 있는데, 이럴 때마다 찬반이 부딪혀서 논의들을 합니다. 이번 인상에서 모든 걸 해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적당한 보수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비 인상은 의원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충분한 보수를 주는 대신에 그에 맞는 책임을 요구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 겸직이나 이해충돌을 엄격하게 관리하고요. 조례나 예산, 행정사무감사들을 더욱 잘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직장인과 청년들도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의정 휴직제 또는 직업에 복귀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있어야 합니다. 의정비 현실화, 의정활동 개념, 전문성 강화, 시민에 대한 책임감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비심의위원 여러분, 오늘 논의하는 것은 단순한 의원의 보수를 얼마나 올릴 것이냐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사람들을 지방의회로 진출시킬 수 있고, 얼마나 전문적이고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지방의원은 단순한 봉사직이 아닙니다. 시민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는 공직입니다. 그 권한과 책임에 걸맞은 조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의정비는 의원 개인에 주는 특혜가 아니라 시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의원을 갖기 위해 부담해야 할 민주적인 비용입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말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을 의회에 보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생계비 걱정하지 않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조건도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일동 박수 》

○ **주재자 (한기정)**

발표해 주신 최병조 대표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현재 의원들 21명 중에 겸직자, 이것은 집행부, 나중에 한번 참고해 주세요. 제가 이걸 회의 때 자료를 받고 의회에 직접 확인해봤는데, 11명 중 1명은 선거 당시에 폐업 처리가 완료돼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10명으로 이걸 수정을 나중에 해 주세요.

의원들이 지금 누구나 의회에서 시민의 일꾼이 되고 이런 걸 하려면 적정한 보수가 보장되어야만 한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부분에서는 동의합니다.

우리 최병조 위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하셨네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부분이 담겨 있어서 추후에 발표가 끝난 후에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조 대표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동 박수 》

마지막으로 반대 측의 성은정 사무처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 (성은정)**

우선은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의정비라고 하는 것에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지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이 부분은 의원들은 의정활동비를 급여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요. 시민들은 '200만 원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까지 포함해서 500만 원이 급여가 아닌가?'라고 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거는 사실 제도가 아니고 잘못 만들어지고 나서 시민들이 오해하거나 혼동하게 끔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앞에 박하진 이사장님께서 훌륭하신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혼동되고 있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관련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월정수당뿐만 아니라 의정활동비에 대해서도 얼마나 큰 문제점이 있는가라고 하는 점이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도 월정수당 관련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논의

한 바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자부터 말씀을 드리면 박하진 선생님께서도 쭉 말씀하셨지만, 크게는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의정비에 관련해서 인상을 해야 한다는 특수성 부분, 그리고 광역기초라고 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타 지역과의 격차, 이 두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의정비를 논의해야 한다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요. 2022년부터 2026년 사이에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올 하반기만 해도 1,000억 원 이상의 재원이 부족할 거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재정 주의 단체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위험 신호죠.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2026년에 시의원분들의 영리활동 즉, 급여를 받으면서 하시는 분들이 21명 중에 열 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세종시의회 의원 정수가 20명에서 21명으로 늘어나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가 신설되는 등의 운영비 자체도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체감하는 재정 부담은 단순 인상률 이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한 특수성만으로 이런 재정 위기 속에서 8.9% 인상까지 정당화되기는 보기는 어렵다.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공무원 인상률보다 높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 공청회를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공무원 인상률 정도였으면 오늘의 이 공청회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높다고 하는 것, 그 안에서 세종시의 여러 가지 재정 여건들, 그리고 현재 26년에 선출되신 시의원들의 상황들, 그리고 상임위의 여러 가지 변화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지금 시기에서 8.9%라는 비율은 다소 무리가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340만 원 정도의 월정수당이 증가되는 건데, 저희가 매월 200만 원씩의 의정활동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증빙하지 않습니다. 의원님들께 그대로 똑같이 현금으로 200만 원이 같이 들어가고요. 의정활동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의정활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

활동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도 만나야 하고 토론회나 공청회 해야 하겠죠. 그런데에 드는 거지만, 영수증은 지출되지 않습니다. 증빙되지 않고요. 저희가 정보공개를 청구해도 정보공개할 사유가 없고 영수증을 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의정활동비로 사용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세종시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비 관련해서 당연히 의정활동과 같이 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느끼는 급여라고 하는 300만 원 정도는 사실 일반적인 수준이 아니라 200만 원까지 다 합쳐져 있는 500만 원 정도의 급여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혼동 부분은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선은 보수체계 일원화와 단일화를 요청합니다. 이게 지금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나뉘어져 있는 이 부분을 하나로 해서 월정수당이든 의정활동비든 한 가지 의정비라고 해서 따로 추가로 지급하는 관행은 없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만약에 의정활동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200만 원에 해당하는 활동비 전체에 대해서 소득세를 전면 부과하고 영수증으로 증빙해서 본인이 의정활동을 한 비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련해서 증빙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월정수당과 관계되어 있는 지금 300 얼마, 그리고 이후에 추가로 오르게 되는 그 비용,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월정수당과 관계되는 오래된, 그리고 지루한 퍼센트 싸움, 그리고 이런 불필요한 논쟁 같은 것이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8.9%라고 하는 거는 이런 세종시 여러 가지 의회의 상황들, 그리고 세종시 재정 전반에 관련된 부분들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의정활동비 관련해서는 200만 원의 활동비와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일동 박수 》

○ 주재자 (한기정)

성은정 사무처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월정수당 인상률에 대한 부분보다 의정활동비

에 대한 증빙,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은 다른 전국 16개 시·도가 똑같습니다. 연 2,400만 원으로 전국이 똑같게 지급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깝게 대전 쪽에서 의정활동비에 대한 증빙을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공청회나 우리 의정비심의회의에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시와 의회와 이야기를 나눠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더 들여다보고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저는 이 부분에서는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같이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은정 사무처장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동 박수 》

이상으로 발표자 네 분의 의견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서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발표하신 순서대로 진행하고요. 마찬가지로 한 분당 주어진 시간은 5분입니다. 다른 발표자께서 궁금하신 질문이나 반론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김홍주 책임연구위원님, 다른 세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내용 반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 (김홍주)

반론 의견도 타당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인상률과 관련해서 8.9%를 인상하는 월정수당 부분에 대한 지적들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의회가 처음에 출범했을 때 공무원 인건비 기준 모수라고 하죠. 그 자체가 너무 작았어요. 그렇게 작은 액수의 인건비를 갖다가 거기에다 또 동결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하다가 조정 기간을 거치면서 조금씩 인건비 상승을 이루어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원래 총액이 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액이 작기 때문에 공무원 인건비 수준으로 만약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게 실제 생활의 어떤 정치로서 우리가 들어갈 때 이분들이 경제적인

안전성을 가지고서 집행부를 견제해 나갈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서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운영의 자율성 들을 키워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 규모와 조직 규모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큽니다. 실국본부가 구성돼 있고, 그 실국본부를 견제하고 예산을 감시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를 둘 수가 있는데, 실제 실국본부 수는 다수인데,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그 상임위원회는 반 정도도 안 됩니다. 각각 실국본부의 예산을 들여다본다고 하더라도 의회가 기능이 부족하다 보니까 2개, 3개의 부서를 합쳐서 하나의 상임위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작동되거든요. 교육청까지 합쳐버리면 굉장히 많은 업무부담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인건비가 모수가 작은 상황에서 실제 봉사활동만으로의 정치를 우리가 요구한다면 다른 지역과도 격차가 굉장히 큰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다른 지역과 격차도 크고, 그 안에서 업무부담이 굉장히 많은 의정활동이 전제가 된다면 거기에 맞는 직업인으로서의 정치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실제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실정에 맞는 정치활동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에 맞은 상임위가 제대로 작동되고 구성되면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보장이 되면 그 안에서 행정사무 감사라든가 예산결산을 승인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같은 것들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제가 판단하건데, 업무부담뿐만 아니라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거는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경기도나 서울과 같은 상황이 좋은 지역들도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의회의 기능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세종시는 그것보다 더하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 행정사무와 관련된 부분을 실제 디테일하게 감사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인건비를 증가시키는 것이 이런 의정활동을 보다 확실하게 해나가는 데 있어서의 필요조건, 충분조건은 아닐 수 있습니다. 즉, 이게 없으면 그 상황을 못해낸다거나 이게 있어야 그걸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의정활동과 적극적인 의회의 어떤 역할들을 해나가기 위한 제도적인 요건이라

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월정수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증액은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서 인건비도 계속 오르고 뿐만 아니라 물가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실제 물가가 반영된 의정 인건비가 그 안에 반영이 돼 왔었는가. 그리고 애초에 의회에 가지고 있는 의회의 인건비 자체의 액수가 실제 생활할 수 있는 범위인가.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면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정활동비 부분도 있습니다.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는 엄연히 구분되는 부분이고요. 성은정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의 가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그것을 통합해 나가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고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미루어보면 법률의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 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공청회에서 인건비 문제와 연동되기에는 조금 더 많은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월정비 자체는 하나의 활동비적 성격으로 기존의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광역의 정책과 예산 기능도 분명히 그 안에 들어가 있지만 생활밀착형 사무가 광역의회보다도 훨씬 더 긴밀하게 작동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는 청원제도와 진정제도와 같은 민원과 같은 상황들이 있는데, 기초에서는 이런 의회의 어떤 공식적인 루트를 통한 청원제도보다는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지역에 숙원사업들을 풀어달라고 하는 민원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사업들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그러한 사업들을 현장조사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그것을 조례에 반영하거나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세종시의회 기초의 어떤 역할은 그만큼 발품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최소의 어떠한 금액을 보전받는 인건비 구조에서 이게 예산이 작다고 해서 인건비를 축소시킨다. 그걸 합쳐봐야 7,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기능을 확실히 높여주고, 그리고 그에 따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줘야 예산을 더 잘 들여다볼 수 있고 한 명의 의원이 1억, 2억, 3억, 10억의 예산을 더 잘 들여다보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물론 이것은 하나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도적으로 이것이 갖추어졌을 때보다 이러한 집행부의 기능을 조금 더 견제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여건과 기능이 조금 더 갖춰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려보고 싶습니다.

○ **주재자 (한기정)**

김홍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지금 세 분이 계신데, 시간 5분 꼭 지켜주십시오. 다음 박하진 이사장님, 지금 발표자분들에게 질문이나 반론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 (박하진)**

김홍주 의원의 최종적인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 김홍주 위원님 말씀 중에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시의원들의 월정수당이 적었다. 그럼 적은 금액에서도 세종시의 기반을 닦기 위해서 해왔던 분들한테 존경을 표해야죠. 지금 현재 새로 출범한 시의원들은 그 임금 안 받잖아요. 지금 4,000만 원, 순수한 월정수당만 갖고 하면 4,000만 원. 그러면 아마 약간 적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용근로자 평균 급여가 지금 한 4,400, 4,500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3,000만 원에서 많이 올랐는데, 그거에 비하면 적은 것 같지만, 거기에다가 의정활동비를 플러스한다고 하면 6,000만 원이면 일반 우리 상용근로자 평균 급여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분들도 여기는 의정활동비를 어떻게 보면 기업으로 따지고 보면 그게 품위유지와 자기 계발비가 포함이 되는 거죠. 기업에서는 그것이 봉급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그걸 2개로 나눠놓았죠. 그래서 그걸 가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의원들이 6,000만 원 정도를 받는 게 사실 적은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소기업과 중소기업, 영세기업의 근로자들은 진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잖아요. 일의 강도가 높다고, 단층제라고 해서 일의 강도가 높다고 하는데, 세종시 인구가 몇 명입니까? 대전의 유성구보다 조금 많고 중구보다 적습니다. 우리의 재정이 얼마예요? 엊그제 신문기사를 보니까 세수 수입이 386억인가 된대요. 지금 기업으로부터 지방세 받은 게. 그런데 청주에 있는 하이닉스 하나가 1년에 내는 게 3,800억이라고 합니다. 세종시 전체 기업이 내는 지방세의 10배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 하나 우리가 얻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했나요? 시장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성과가 같이 연결된다면 저는 서울과 경기도보다 더 많이 줘도 돼요. 그래야 우리 시의원들 세종시의 품격도 높아지고, 시의원들의 가치도 높아지죠. 왜 우리는 주기 싫습니까? 그런데 현재 세종시의 재정 여건, 인구가 감소하잖아요. 지금 매달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늘릴 대책을 같이 고민해 봤나요? 전시행정을 위해서 했지, 의회 차원에서 실제 범국민, 범시민운동 한번 해봤나요? 시민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방세가 줄어든다는 얘기나 똑같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일은 많은 걸 인정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 시민의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언론 기사를 보면 세종시 세수절벽 280억, 이게 부족해가지고 12월달에 공무원 인건비 못 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같이 고통 분담하자는 얘기죠. 세종시민의 평균 임금이 공무원들 때문에 다른 시·도보다 높아요. 여기는 일반 기업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본다면 세종시의 임금이 높아야 되는 건 또 맞죠, 거기에 비춘다면. 근데 전체 세종시를 떠나서 여기 전국을 비교했으니까 전국을 비교한다고 하면은 세종시의 여건만 갖고 보면 적은 것은 아니다. 시민들은 한 명 늘린 거 지금 시의원 이런 얘기 들으면 저 시의원들한테 욕바가지로 얻어먹게 생겼어요. '시의원 줄여야 한다.' 이야기들을 해요. '시의원 너무 많다. 줄여야 한다.' 그다음에 상임위, 이제 끝날 때까지는 초선들도 상임위원장 다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서 그럼 시의원들은 그런 권력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권력이라는 그런 게 부여된다고, 인건비 말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시의원들이 지금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인건비를 많이 주면 우수한 시의원들도 들어올 수 있죠. 근데 들어와서 어때요? 좋은 시의원 들어와. 들어와서 좋은 시의원이 되나요? 물들어서 이상한 시의원 많이 생기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일동 박수 》

○ 주재자 (한기정)

박하진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병조 대표님, 질문 주세요.

○ **발표자 (최병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반론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발제할 때 '의원이 의원 같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누구나 의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급여를 조금 주면 도둑질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줘야 됩니다. 이거는 아닌 거고요. 그다음에 세종시가 다른 지역보다 물가도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세종시의 일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의원 수가 부족하면 부족하지, 많지 않습니다. 시가 작다고 해서 일거리가 적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해야 할 일들, 돌아봐야 할 일이 많은데, 거의 못 보고서 그냥 가는 것도 많습니다. 지금 의원들 사무실에 가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책상 위에 두꺼운 책들이 열댓 권씩 쌓여 있어요. 자기가 그거 다 어쨌든 읽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질문할 것들도 찾고, 질문할 거리를 찾으면 또 공부해야 가서 잠깐이지만 질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충분히 가질 수 있고,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원하는 거죠.

아까 좋은 의원이 들어와서 나쁜 의원이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 좋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는 게 가장 맞고요. 그리고 오늘 얘기를 하다 보면 오늘은 월정수당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지난 3년 전에 200만 원으로 딱 올리면서 그게 확정이 돼 있고, 오늘은 월정수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월정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정수당이 올려져서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춰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의정활동비는 거기는 그냥 주어지니까 세금이나 이런 부분이 없거나 아니면 그걸 증빙할 수 없는 것이 맞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제도로 평상시에 바꿔야 할 일인 것이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의원들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의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를 얘기해야 합니다.

또 이렇게 보면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제까지 의원들이 잘하지 않았으니까 못 올려주겠다는 말도 언뜻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조건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못했다면 왜 못했는지를 우리가 서로 짚어봐야 합니다. 정말 월급이 적어서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그런 것에 우리가 좋은 사람이 올 수 있는 조건들을 뭘 만들어놨는지 이걸 살펴보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시기를 말씀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재정적으로 어렵다. 조금 어려운 거, 아마 언론에 나와 있는 게 침소봉대가 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사가 어려웠을 때 직원들 월급을 깎고서 회사를 구하자고 그러는 게 옳을까. 회사가 어려운데 회사원들을 봉급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올려주면서 다른 방법들을 찾아서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회사를 잘 경영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하는 거죠. 우리 세종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시장이나 의원들 중에서 우리의 세수 말고 세종시의 수입 늘리는 일을 해보겠다는 의원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의원들이 나올 수 있게끔 그런 받침대를 일단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려우니까 깎자. 올리지 말자.'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의정비 심의는 4년에 한 번밖에 못 합니다. 여기서 못 올리면 4년 동안 그냥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우리들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이 얼마나 갖춰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 일동 박수 》

○ 주재자 (한기정)

마지막으로 성은정 사무처장님, 반론 주십시오.

○ 발표자 (성은정)

우선은 두 가지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은 저

희 반대쪽에서는 쭉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인상률 정도였으면 공청회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공청회를 한다는 이유는 어쨌든 일반 상식, 시민들의 인식 수준에서 벗어난 비율로 지금 측정이 되고 인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공청회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의정활동비는 말씀드렸듯이 의정비 안에 있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두 가지를 다 논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는 맥시멈 최대 200만 원, 광역은 최대 200만 원, 기초는 최대 150입니다. 그게 정해진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라고 하는 것에서는 의정활동을 최대 맥시멈으로 하라는 시민들의 의지가 남긴 금액이지 그것이 정해져 있어서 무조건 200만 원은 아니라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오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를 심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정활동비는 어쨌든 최대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열심히 하시라고 200만 원을 드리는 거지만, 월정수당에 해당하는 거는 과연 이것이 인구수 대비, 그리고 의정활동 대비, 그리고 여러 가지의 세종시의 특수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관련해서 이렇게 해서 심의하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고요. 공청회는 그렇게 심의돼 있는 의견들에 대해서 저희들의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목소리도 담겨있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하시는 회의와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원칙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청회를 하는 이유는 공무원 임금 수준이라고 하는 거면 그냥 그러겠거니 하고 넘어가서 공청회를 하지 않지만, 이게 어쨌든 8.9%라고 하는 다소 높은 인상 비율인 거죠. 물론 거기에는 세종시가 그동안 최하위에 있었다는 것 그동안 박하진 선생님도 말씀하셨고 저희도 모르는 바 아니고요. 그리고 기초광역 해서 저희도 관련해서 쭉 같이 의정활동하시는 걸 보기 때문에 어렵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느끼기에 시민들이 본인들의 삶과 연결시켜서 봤을 때 세종시의 상황과 그다음에 의정활동이라고 하는 시민들이 바라

는 어떤 의원님들에 대한 생각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공청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들은 다소 높지 않겠느냐고 하는 말씀들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서는 조정이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3.9% 공무원 임금 인상률로 높이면 매년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러니까 공무원 임금 인상률만큼씩 매년 인상이 되는 거죠. 저희가 이거를 동결하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3.9%에서 8.9% 퍼센트 싸움이고 어느 정도 수준이 조정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들께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의견들을 드리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종시에서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2026년에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에 본인들이 갖는 영리가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 하고 있는 업에서도 받는 급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은 그렇고, 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데서 나타나는 불균형, 불평등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목하는 거는 어쨌든 시의원들이 겸직이라는 걸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말씀도 같이 드리는 거고요. 의정비 외에도 지금 지급되고 있는 상황들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 업무추진비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 운영 공통경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는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에게는 정액급식비도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타 등등에서 각각의 지위를 맡으면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금액들도 보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바라는, 어쨌든 지금 세종시에 일찍 전등이 꺼지는 정도의 그렇게 시민들이 체감하는 시의 재정 등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8.9%라고 하는 다소 높은 비율로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 일동 박수 》

○ 주재자 (한기정)

성은정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오늘 참석해 주신 네 분의 발표와 상호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많이 오시진 않아서 시민 방청객분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방청하고 계신 우리 시민들, 이 내용에 관해서 말씀하고 싶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어디에서 오셨는지, 누구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내 소란 》

○ 발표자 (김효주)

잠깐 제가 정리한 거 말씀드릴게요.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의회의 기능은요. 예산결산을 하고요. 예산을 확정하고 심의합니다. 그 다음에 조례를 제정하고요. 그다음에 단체장을 견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방식으로 청원제도랑 진정제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청원제도는 법제도적으로 시민이 의회에게 연결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가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민원과 같은 건데, 지금 주시는 말씀이 일반민원과 같은 사무에 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법제도적으로 의회 본연의 기능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런 의회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 중에 이런 일반민원에 관한 것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세종시 기초의 역할을 담당하다 보니까 이런 일반 민원과 관련된 사무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아까 주셨던 말씀이 의정비 삭감에 대한 주장이시지만, 그걸 찬성하는 주장 측에서는 의정비에 대한 여러 가지 인상 요구에 대한 부분도 시민들이 받아들여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반대 의견을 역으로 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연의 기능에서 벗어나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 실제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 주재자 (한기정)

잠시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 세 분의 시민분들의 말씀을 들

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만 더. 마이크 건네주시고요. 어디에서 오셨는지, 누구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방청객**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롬동 주민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8.9%에 대한 그 높은 인상률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기하는 거고요. 방금 먼저 처음 말씀하셨던 소란스럽게 하셨던 분 얘기가 의원의 본연의 업무가 아닌 민원에 해당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의민주주의에서 저 사람들의 의견을 대신해서 시의원이 활동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거는 시의원의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병조 발표자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면 의원들에게 낮은 의정비로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아무도 희생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선출직 의원이 자기가 원해서 나와서 하는 거지, 이 정도 수준의 임금을 다 알고 나오셨던 분들입니다.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된다고 하셨던 부분들은 분명히 잘못된 사실관계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21명 중에서 10명 정도가 자기 보수를 받고 있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되게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최병조 발표자님의 이력을 봤더니 민주당 소속으로 예비 시의원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런 이력을 갖고 있는 분이 지금 발표에서 자기 스스로 이걸 배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이 경력을 알고 봤을 때 저는 공정하게 들리지 않더라고요. ‘스스로 이걸 배척해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홍주 위원님, 연봉이 많으면 의정활동을 잘하고, 연봉이 적으면 업무를 못 보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논리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3기 의원들, 4기 의원들이 최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일했는데, 그럼 그분들이 지금 우리 광역단체 중에서 일을 제일 안 했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연봉만으로 그 사람의 업무 열의나 성과를 판단하지 않는데, 지금은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3.5% 이상의 임금 인상을 하는 데서는 웬만한 수준의 시민들이라면 반대를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8.9% 이외에도 매년 3년간 공무원 임금 수준으로 자동으로 인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4년으로 봤을 때 최소 20% 올라가는 거예요. 8.9%에 매년 공무원 임금수준인 3.5% 인상을 하게 되면 4년 동안 20%를 올리는 거란 말입니다. 세종시의 지금 재정 상황에서 이게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회사가 어려우면 회사가 어렵다고 임금을 깎자는 게 아니라 세종시 재정 상황에서 시민들한테 가는 서비스 수준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의원들도 거기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주재자 (한기정)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마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네. 어디에서 오셨는지, 누구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방청객

소담동 주민인데요. 최병조 공동대표님께 청년 정치인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의정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유능한 인재들이 의회에 들어와야 한다는 방향성은 맞는 것 같은데, 청년이나 평범한 시민들이 선거에 출마조차 하기 힘든 근본적인 이유는 막대한 선거비용이나 정당의 공천장벽 때문이지 당선 이후 받게 된 월정수당이 적어서라고는 보이지 않거든요. 원인과 결과를 혼동해서 공천이라는 일차적 진입장벽은 그대로 둔 채 수당만 말씀하시는 거는 그게 실용적인 정책이라고 보시는지 그 부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주재자 (한기정)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시민 의견 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곤란한 부분들은 들어오실 때 배부해드린 의견제출서에 의견을 적으셔서 가실 때 안내데스크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토론에 참여해 주신 네 분의 발표자분들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소중한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민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비를 결정함에 있어서 오늘 공청회라는 이 절차가 시민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잘 종합해서 다음주에 예정된 제4차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반영하여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대 세종시의회 의원 의정비 관련 주민 의견수렴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동 박수 》

(記錄 終了)